

국민해양안전관 지어만 주고 빠지려는 정부

진도 건립 추진...해수부 “年 25억 운영비 지자체가 내라” 전남도·진도군 “세월호 특별법에 국가 지원 명시” 반발

정부가 국비 270억원을 들여 진도군에 건립을 추진 중인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를 전남도와 진도군에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들어서는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교육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운영비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일 전남도와 진도군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건립되는 국민해양안전관 준공 후 발생하는 관리·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달 초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해수부는 지난 3월 말께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중 일부인 42억 5200만원을 전남도와 진도군에 내려보내면서 ‘안전관 건립 이후 운영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주체인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전남도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은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국비 270억원을 투입해 팽목항 인근 3만3000㎡ 부지에 희생자 추모 공원, 해양 훈련·교육·세미나 시설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전남도와 진도군이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비는 매년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36조에는 ‘국가는 희생자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자치단체에 운영비를 전가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맞지 않는 지적이다.

더욱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남도와 진도군은 매년 25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마련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또 국민해양안전관이 수익보다는 추모를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자치단체 주도로 운영할 경우 매년 운영난이 반복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진도군 관계자는 “국민해양안전관이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주도로 건립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과 제 역할을 위해서는 당연히 전액 국비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운영비는 사업시행 주체인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세월호 특별법에서도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전액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향후 세월호와 관련된 각 부처 간 논의와 정책 변화에 따라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에 관한 부분을 검토해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오는 26일 국민해양안전관 부지선정을 위한 건립실무위원회를 열어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팽목항에서 500여m 거리에 있는 임회면 산 90번지 일원이 최종 부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아픔 시로 담아낸 재일 원로시인 5·18묘지서 박관현 열사 동생 만났다

“때로 말은/ 입을 다물고 색을 낼 때가 있다/표시가 전달을 거부하기 때문이다/종락~/남자는 벽 속의 평온을 끊었다/음식을 끊고/협박을 끊고/ 거짓을 끊고서/ 생명을 끊었다/하락”(임 다문 말-박관현에게)

서울 퍼런 전두환 정권 당시 일본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주역 박관현 열사를 기리는 시(詩)를 발표한 재일 원로 시인과 열사의 동생이 처음으로 만났다. 20일 열사가 잠들어있는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다.



〈박관현씨 제공〉

5·18기념재단의 초청을 받고 일본에서 건너온 시인 김시중(87·사진 왼쪽)씨는 이날 열사의 묘소에서 직접 시를 낭송했다. 지켜보던 박관현(53)씨도 큰형이 떠올랐는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박관현의 죽음은 80년 광주의 아픔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서 시를 쓸 때나 지금이나 너무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구수를 바라보는 시인이 관현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서 머무르던 시인은 1980년 5월부터 현지 언론을 통해 광주 소식을 접했다. 신군부 세력이 광주를 짓밟고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처참한 소식이 매일 신문과 방송으로 날아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인의 가슴을 후벼판 것은 박관현의 죽음이었다고 한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의 불을 지피

고 육공 단식 끝에 지난 1982년 29세의 나이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젊은이.

시인은 박관현에 바치는 시 ‘입 다문 말’을 비롯해 광주항쟁을 다룬 시 21편을 묶어 지난 1983년 ‘광주시편’이란 이름으로 일본에서 발표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014년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광주시편 한국어판을 펴냈다. 재단은 당시 출간에 맞춰 시인과 열사의 유족 간 만남 자리를 만들려고 했으나 당시 시인의 일정이 여의치 않아 만남이 늦춰졌다고 한다.

관현씨는 “시인께서 생전 형님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는데 들보아 들을 학살했다는 처참한 소식이 매일 신문과 방송으로 날아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인의 가슴을 후벼판 것은 박관현의 죽음이었다고 한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의 불을 지피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해남군 인사 비리 의혹 박철환 군수 소환 조사

해남군의 인사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광주지검이 20일 박철환 군수를 불러 관련 여부를 조사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남군에서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가 인사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박 군수의 부인과 담당 직원들을 소환해 관련 여부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남군 인사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한 후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자료 조사와 소환 조사가 끝나는데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담당자 등에게 주의 처분과 징계를 권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진 때피 이렇게 20일 광주시 북구 흥흥어린이집 원생들이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지진 발생시 대피 요령을 배우고 있다. 최근 일본과 에카도르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천 현금 의혹’ 박준영 당선인 수사

검찰 “금품 요구 정황 포착”...피의자 신분 입건

검찰이 20대 총선 공천현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영암·무안·신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수사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4·구속)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 당선인에게 공천현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김씨를 17일 구속했다.

김씨는 박 당선인에게 3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혐

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 보겠다고 한 정황도 포착해 집중 수사중이다.

다만 김씨가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초 사이여서 금품 제공 명목을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국한해 볼 수는 없고 이번 총선 공천 전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선인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마

치는대로 박 당선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는 혐의 사실 입증은 확실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돼야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이 적절하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하순선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박 당선인의 무안 남야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당선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학교 방화문에 깔려 초등생 중태

초등학생이 학교에 설치된 방화문에 깔려 중태다.

2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A(8)군이 복도에 설치된 방화문에 깔렸다.

A군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 천장에서 내려오던 방화문에 가슴 부위를 짓눌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은 학교에 설치된 여러 개 방화문 중 한 개만 작동한 점, 해당 방화문의 수

동 작동 버튼을 누른 흔적 등에 주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방화문이 2단계에 걸쳐 일정 시간을 갖고 서서히 내려온다는 점을 감안, 오작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중이다.

경찰은 “방화셔터 작동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고 하고 시간이라 복도가 학생들로 어수선했다”는 학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논문 표절 재판 중 또 논문 표절해 연구비 부정 수급한 교수

○대학 교수가 논문 표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논문을 표절해 수천만원의 연구활동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불의.

○20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순천 모 국립대 A(48) 교수는 지난 2010~2013년 모두 6건의 논문을 표절해 21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부정하게 탕감한 것.

○경찰 관계자는 “A 교수는 2009~2010년 사이 모두 16편의 논문을 표절해 발표하고 2500여만원의 연구활동비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논문 표절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커피숍 상가 건물 매매(전대정문)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010-7384-7800

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을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 서구 신흥동 대은파크빌 (빌라 원룸) -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1억 1천만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광산구 월계동 참단지구 1층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 식당, 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 (용 4천)
□ 매가 8천 500만	□ 매가 1억 5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 4백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0평) 2층-전망 좋음, 주변 골목상, 아파트 일직리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 5백만 가능)
□ 매가 7천 500만	□ 매가 3천 5백만

010-6834-4800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1. 전남 장성 삼서 (토 3492평, 건 5733평) (의료시설) ◆ 1층~3층 (의료시설 전 요양병원 운영) ◆ 장성 상무대 입구, 대로변 감정가 48억 8천 6백 → 최저가 34억 2천만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되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반) 주말반 (오전, 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인원분, 부동산 경매 관심 인원은분, 가족처럼 알려드립니다 환영합니다.
2. 서구 양동 (토 577평, 건 424평) (숙박시설) ◆ 1층 (주차장, 카운터) 2층~5층 (숙박시설 40개) ◆ 광주은행 동측 인근, 약 10M 도로 접 감정가 10억 8천 → 최저가 6억 8백	
3. 서구 화정동 (토 800평, 건 2567평) (동 나이트) ◆ 광천(미밀) 뒤면 위치 ◆ 현 나이트 운영중 ◆ (나이트 직영, 미밀 부근 투자 가치 추천)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2억	
4. 동구 동명동 (토 211평, 건 606평) (근린시설) ◆ 1층 (스매집) 2층~8층 (오피스텔 룸) ◆ 동명 교회 북측 인근, 4차선 도로 접 감정가 19억 5천 → 최저가 19억 5천	
5. 전남 순천 조례동 (토 2332평, 건 3960평) (근린시설) ◆ 7층 (수영사우나, 골프장, 주차장, 복합 건물) ◆ 100평 부근, 대면위 아파트 단지, 순천 C 중심지 대면 감정가 140억 → 최저가 64억 5천	
6. 북구 운암동 (토 66평, 건 194평) (근린시설) ◆ 1층~5층 사무실 (지하음식점), 6차선도로 접, 감정가 7억 4천 → 최저가 7억 4천	

010-6832-9700